

1976년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인천시의 주민 87가구 46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환경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에서 10-19세군이 30.7%로 수위였고 0-9세군이 20.9%로 2위였으며 60세이상군이 3.7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.
2.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국졸이 26.3%로 가장 높았고 국민학교 재학이 19.3%로 2위였고 대학교재학이 0.4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.
3.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는 학생이 27.4%로 가장 높았고 주부가 15.0%, 미취학이 14.6%로 각각 2, 3위를 나타냈고 소비상및 행상이 0.7%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.
4. 조사대상가구별 생활환경은 음료수원의 경우 공동정호수 이용이 전체의 79.3% 변소의 경우는 공동변소이용이 49.4%, 하수도는 노출된 하수도가 5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5. 상병자의 상병분류별 상황에선 전염성 및 기생성 질환이 27.3%로 수위였고 소화기계 질환은 26.6%로 2위였다.
6. 상병자의 연령별 분포에서 40-49세군이 25.2%로 수위였고 연령별로 본 유병률은 0-9세군 외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. ($p < 0.005$)
7. 상병자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국졸이 33.8%로 수위였고 또한 교육정도별 유병상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($p < 0.005$)
8. 상병자의 직업별 분포는 주부가 34.5%로 가장 높았고 미취학이 14.4%, 일일수입을 위한 노동이 13.7%로 각각 2, 3위로 나타났다.
9. 상병자들이 이용하는 음료수원의 분포에서는 공동정호수이용하는 경우의 유병률이 인구 1,000명당 318.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아파트 거주 부녀자들의 모성보건에 관한 지식 및 실천 상황에 관한 실태조사

대한간호, Vol. 16, pp. 1~5(上), pp. 1~6(下), pp. 64~73(上), pp. 71~79(下), 1977.

권 순 단

전남 광주 지역 아파트 거주 부녀자들의 모성보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15일부터 1977년 1월 15일까지 99명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.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- ① 가임부인 99명의 평균 임신 회수는 4.2회이었고 교육수준별 임신 회수는 통계적

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($P > 0.05$).

② 현존 자녀수 평균은 2.8명이었으며 교육정도에 따른 현존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($P < 0.05$).

③ 산전진찰 회수에 대한 지식 및 실천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.

지식 : 3개월 <38.4% > 실천 : 3개월 <24.2% >
7개월 <18.2% > 7개월 <5.0% >
막달 <4.0% > 막달 <3.0% >

④ 연령별 분만 예정일 계산법을 알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으나($p > 0.1$), 교육별로는 뚜렷한 차가 있었다($p < 0.01$).

⑤ 임신중 위험증상에 대한 지식은 하혈 94.9%, 복통 90.9%, 부종 87.0%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국졸이 가장 저조했다.

⑥ 임신중의 섭생에 관한 지식과 실천에 있어서 치아관리 <25.2% >와 체중관리 <32.3% >가 가장 낮은율을 보였다.

⑦ 임신오조에 대한 지식은 39.4%로 저조했으며 실천에 있어선 더욱 부진했다 <11.1% >, 연령별 분포에 따른 임신보조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($p < 0.05$) 교육별 지식과 실천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($p > 0.1$).

⑧ 분만장소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보면 병원분만이 좋다고 한 수가 86.8%인데 실제 병원분만을 했던 사람은 47.4%이었으며 교육별 분만장소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($p < 0.05$).

⑨ 병원분만을 못한 이유중 경제적인 이유가 55.0%로 가장 높았고 「가정이 더 안전하기 때문」이라고 한 수가 21.2%나 되었다.

⑩ 가정분만시 분만개조자에 있어선 조산사이었던 경우가 9.6%에 불과했으며 본인인 경우가 21.2%나 되었다.

⑪ 가정분만중 제대 절대기구로서 소독가위를 사용하지 않았던 수는 38.3%나 되며 이는 40~44세군의 고령세대들이며 학력이 낮을수록 소독가위를 사용치 않았었다.

⑫ 산욕기간을 6~8주로 알고 있는 수는 45.5%이었다.

⑬ 초유처리에 있어선 초유를 짜서 버린다가 53.5%나 되었으며 대졸에서도 20.0%가 짜버리고 있으며 초유를 먹이지 않는 이유로는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58.4%나 되며 다음으로 습관이 28.5%로 나타나 많은 계몽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.

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.

첫째, 지식과 실천을 비교해 보면 옳게(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보다) 지식의 이해보다는 실천한 수가 현저하게 낮은 실정인데 이러한 차이점을 초래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겠다.

둘째, 이 지역사회 보건분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성보건 뿐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요구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겠다.

셋째, 아파트별로 경제생활, 교육정도, 직업의 차이등과 모성보건의 지식 및 실천

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.

이유식에 대한 조사연구

대한간호, Vol. 16, No. 1, pp. 80~83, 1977.

김 옥 희

이번 조사를 통하여, 모유의존의 영아 영양, 우유 및 영아식품의 사용의 경우 영아에 대한 영양공급이 너무나 부족하여 앞으로 영아의 영양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래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도 영양위원회로 하여금 오랫동안 연구케 한 결과 우리나라 영아를 위해 “아기를 위한 음식물”이란 책자를 발해하고 이유식에 대한 정의 및 시기, 그리고 방법등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. 모유에 의존하는 육아는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이유시기가 빨랐으나 모유 의존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85%가 모유에 의존하였음은 높은 편이다. 그리고 장기포유가 영아는 물론이고 모체에 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때 모자보건의 큰 문제점이 된다. 지역적으로는 도시의 모유의존도가 76%, 농촌 89%, 어촌 90%였다. 그리고 모유가 아닌 경우라도 인공유는 이용도가 13%로 낮은편인데 아마 경제적인 이유로 풀이된다. 그리고 3~4개월되면 다른 음식물을 먹어야하고 차차 그 분량이나 종류를 늘려야함에도 실제 마지막 자녀에 실시한 이유시기를 반이상인 52.7%에서 12개월 이후로 보고 있으며, 6개월전에 실시한 것은 25.3%에 불과하였다. 더우기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12개월후에 이유를 할 경우는 각 61% 및 64%로서 농어촌 어린이들의 건강문제가 염려된다. 영아기의 보조식품이 빵, 달걀, 우유, 꿀, 미숫가루 등을 먹인 경우는 33%로서 주식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, 영양제 복용상태는 60.9%에서는 먹이지 않았으며 다만 38%가 원기소, 비타민 정도를 먹였고 영아기에 오기쉬운 철결핍성 빈혈을 위한 철제는 1.3% 뿐으로 우리나라 활동기 아동의 철결핍성 빈혈이 도시에서는 남 51.06%, 여 53.02% ⑤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였다. 뿐만아니라 한국 소아의 중증빈혈의 9.5%가 철결핍성 빈혈임을 생각할 때 철제복용을 써야할 것이다.

1) 대상 어머니의 대부분이 영아의 영양을 모유에 의존하였으며, 도시지역마다 농촌이나 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모유의존도가 높았으며,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모유의존도가 낮았다.

2) 마지막 자녀에 실시한 실제 이유시기는 전체적으로 52.7%에서 12개월 이후에 이유를 함으로서 철결핍성 빈혈등 여러가지 영양장애로 인한 성장과 발육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